

금융·콘텐츠·모빌리티로 기업가치 ↑… 수익성 입증에 관건

K 카카오 10조 성장 전략

① 카카오X 인적분할

향후5년간 연평균 13% 성장 추진
인적분할 후 ‘미래 투자회사’ 전환
효율적 자본분배와 신사업 투자 확대

카카오가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 카카오X를 앞세워 2030년 매출 10조원 달성에 나선다. 금융·콘텐츠·모빌리티 계열사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신사업 투자를 확대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인적분할 이후 지주회사 할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성장 목표가 실제 수익과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14일 카카오가 공개한 ‘2026년 애널리스트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X는 2030년 매출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3%의 성장을 추진한다. 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 계열사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8.6%보다 4.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카카오X의 올해 6월 말 연결 기준 자산은 22조원, 부채는 9조8000억원, 순자산은 12조2000억원이다. 최근 12개월 기준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

/카카오

영업수익은 5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4600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연결 대상 자회사사가 아니어서 매출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산 22조원 기반 투자 재편…성장 동력 확보 총력

카카오X는 인적분할 이후 단순한 계열사 관리회사가 아닌 ‘미래가치 투자회사’로 전환한다. 효율적인 자본 배분과 계열사 기업가치 제고, 신성장동력 투자를 3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투자 대비 수익성이 높은 사업과 미래 핵심 사업에 자본을 우선 배분하고, 카카

증권가, 지주회사 평가 가능성 경계

삼성증권, 기업가치 10.8조로 추산

배당·투자차익 활용 주주환원 확대

계열사 간 협력 통해 실적 확인해야

오인베스트먼트와 카카오벤처스를 활용해 혁신기업 발굴과 신사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계열사 서비스 혁신도 지원한다.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금융·콘텐츠·모빌리티가 있다. 금융에서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사업을 추진한다. 발행부터 수탁, 결제·송금까지 연결하고 콘텐츠와 모빌리티 서비스로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콘텐츠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글로벌 팬덤 사업을 강화한다. 공연 예매와 이동, 결제, 상품 구매를 연결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빌리티에서는 자율주행과 피지컬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물류차량 확대에 따른 차량 금융, 물류 운영, 차량 내 콘텐츠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 ‘지주회사 할인’ 우려…10조 매출보다 수익성이 관건

문제는 인적분할 이후 기업가치 평가다. 카카오는 사업 구조 재편으로 투자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카카오X가 지주회사에 가까운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8월 인적분할 발표 당시 카카오X가 보유 지분 중심의 순수 지주회사에 가까운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삼성증권은 지주회사 할인을 30%를 적용해 카카오X의 기업가치를 10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카카오X가 2030년 매출 10조원을

달성하더라도 투자 효율과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업가치 상승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금과 투자차익을 활용한 주주환원 확대도 추진한다.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을 병행해 기업가치 할인 우려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인적분할의 첫 관문은 오는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다. 주주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1일 분할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는 지난 13일 열린 그룹 공동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테크핀, 콘텐츠, 모빌리티 등 주력 사업군의 강력한 플랫폼과 기반 기술, 고객 접점 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카카오X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카카오X의 승부처는 분할 자체가 아닌 분할 이후의 실적이다. 자산 22조원을 기반으로 계열사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 효율을 높여야 한다. 매출 10조원이라는 외형 성장 목표를 넘어 지주회사 할인 우려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가 기업가치 재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덴 아이브스 “AI 진행률 약 15% 불과… 코스피, 전고점 돌파할 것”

(美 월가 기술주 강세론자)

“나스닥 종합지수 3만5000선 전망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이 이끌어 현재 코스피 변동성은 근거 부족”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기술주 강세론자로 꼽히는 덴 아이브스 요크빌 아이브스 공동설립자(사진)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세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수년간 AI 인프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기술주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메모리 산업의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이브스는 “AI와 관련해서는 진행률이 약 15%에 불과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향후 수년에 걸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만5000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혁명을 주도하는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반도체 등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과거 닷컴버블과 현재의 AI 투자 사이클을 동일하게 보서는 안 된다고 제

언했다. 1999~2000년 닷컴버블이 터졌던 시기가 아니라 1997년 단계에 와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수년간 기술 섹터가 30%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2027년 주요 기술주 투자 종목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애플 ▲클라우드스트라이크 등을 꼽았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도 주목할 기술기업으로 언급했다. 아이브스는 두 기업의 합병 가능성을 약 80%로 예상하면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사업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스페이스X가 향후 대규모 하이퍼스케일러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아이브스는 “올해 주요 기술주 종목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바 있다”며 “SK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든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의 규모와 스케일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도 2029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 증시가 경협하고 있는 변동성은 근거가 부족

하다”며 “앞으로 6~12개월 안에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연고점은 지난 6월 19일 로, 장중 9300선을 돌파했다.

창신메모리(CXMT) 등 중국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이브스는 “한국은 전략적으로 유리하고 견고한 위치에 있고, 창신메모리의 기술 개발은 ‘픽션(허구)’에 가깝다고 판단한다”며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은 중국보다 메모리 기술 측면에서 3년 정도 앞서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아이폰으로 집 안팎 살핀다”… LG전자-애플, AI홈 경험 제공

실내외 카메라 등 7종 신제품 선보여
애플 인수·쌍구 개방으로 영토 확장

LG전자가 애플과 공동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앞세워 가전 중심의 인공지능(AI)홈 사업을 보안 관리로 확대한다. 애플 플랫폼과의 연동으로 아이폰 이용자까지 고객층을 넓혀 북미와 영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14일 LG전자는 전날(미 동부 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애플과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실내외 카메라 3종과 도어벨·도어락, 센서 등 총 7종으로 연내 미국·캐나다 등에 우선 출시할 예정이다.

양사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협력해 LG전자의 제조 역량과 애플의 플랫폼 기술을 결합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LG전자의 AI홈 플랫폼 ‘쌍구’와 애플 생태

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아이폰·아이패드로 기기를 연결하고 외부에서도 작동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온도 조절기는 이러한 연동 기능을 난방 관리에 활용한다. 아이폰·애플워치를 통해 사용자의 동선과 시간대, 날씨 등을 분석하고 공간별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반영해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도어락에는 사용자의 출입 의도를 감지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여러 센서로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해 별도 조작 없이 문을 열어주며, 문 열림이나 훼손 시도, 무단 출입 등 이상 상황은 모바일 기기로 알린다.

이와 함께 실내외 카메라와 도어벨은 ‘비전 AI’로 집 안팎을 살핀다. 실내 카메라와 도어벨은 사람과 동물은 물론 차량과 택배도 구분해 상황에 맞는 알림을 제공하며, 비와 먼지에 노출되는 환경을 고려해

IP65 등급의 방진·방수 기능을 갖췄다.

실내에서는 카메라가 사람과 반려동물을 인식하고 아기 울음이나 유리 깨지는 소리를 감지한다. 사용자가 귀가하면 프라이버시 보호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반면 실외 카메라는 집 주변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LG전자의 보안 솔루션 ‘LG 쉴드’와 애플의 데이터 암호화 기술로 보호한다.

이번 협력에 앞서 LG전자는 외부 기기와 서비스를 쌍구에 연결하기 위한 투자를 이어왔다. 그 일환으로 2024년 7월 네덜란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애플 지분 80%를 인수했다. 당시 애플의 대표 허브 ‘호미 프로’는 5만여 종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어 다른 제조사의 제품까지 아우르는 AI홈 구축 기반을 확보했다.

이어 같은 해 공개한 AI홈 허브 ‘쌍구 온’에는 생성형 AI를 탑재해 사용자의 일



(왼쪽부터)실외 카메라, 투광조명 탑재한 실외 카메라, 실내 카메라, 도어락, 도어벨, 온도 조절기.

/LG전자

상적인 표현을 이해하고 가전과 IoT 기기를 제어하도록 했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기기를 연동하는 스마트홈 표준 ‘매터’ 인증도 받아 연결 범위를 넓혔다.

기기 간 연결에 이어 외부 플랫폼에서

LG 가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도 개방했다. 같은 해 12월 쌍구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하면서 외부 개발자가 자체 서비스에 LG 가전의 제어·모니터링 기능을 넣을 수 있게 됐다. 기업 고객 역시 기존 건물 관리 앱에 LG 가전과 냉난방 설비를 연동해 통합 관리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처럼 구축한 허브와 플랫폼에 이은 IoT 신제품을 더하고 애플과의 협력으로 해외 고객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애플은 지난 1월 실적 발표에서 전 세계 활성 기기가 25억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기현 LG전자 HS플랫폼사업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의 가전 및 집 안 공간에 대한 전문성과 애플의 독보적인 사용자 경험, 그리고 양사의 강력한 보안 역량을 결합해 안전하고 직관적인 AI홈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